

호남, 인도네시아에 50억달러 투자

2013년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 ... 인도네시아 해외투자 유치 총력

인도네시아가 2013년 정유 및 석유화학 등에 300억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8월28일 보도했다.

MS 히다얏 산업장관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국영 석유기업인 Pertamina와 공동으로 동 자바(Java)와 서 자바에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 자바의 발롱안 정유공장에는 쿠웨이트가 투자하고 동 자바의 투반(Turban) 정유공장에는 Saudi Aramco가 투자하며 투자규모는 각각 100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개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이 하루 60만배럴에 달하며 공장이 가동되면 정부가 연간 140억달러의 석유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히다얏 장관은 또 호남석유화학도 2013년 50억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호남석유화학 플랜트가 가동되면 60억달러에 달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플랜트 가동 후 10년 동안 면세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이완 전자기업 팍스콘이 50억달러를 투입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팍스콘과 같은 대형 투자가 2013년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조정청(BKPM) 차팁 바스리 청장은 2013년 투자목표를 2012년 283조5000억루피아에 비해 37.6% 많은 390조루피아(약 411억달러), 경제성장 목표를 6.8%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8>